



- 가정의 달 행사
- 주안에만남
- 한국 브릿지캠프
- 교육부 / 간증



Echo Park 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EM 청년들, 구원이 필요한 영혼의 표징처럼 'SIN' 이라고 박힌 모자의 로고가 눈길을 끈다.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 EM · ICY City Outreach(일일선교)

지난 5월 25일, 16명의 EM과 ICY 일일선교사들이 LA의 Echo Park에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먼저, 훈련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선교에 임해야하는지 배우고,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일에는 MP채플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위해 부르짖고 여러 준비를 마친 뒤, Echo Park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생각하고 예약했던 자리에 사람이 많이 없어보여, Lake를 걸어다니다가 하

나님께서 놀이터 옆에 좋은 장소로 저희를 인도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핫도그와 Balloon Art, 복음팔찌, 전도지들을 통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고, 함께 온 부모님들도 대화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2인 1조로 팀을 나눠 Lake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고, 복음을 나누게 되고, 기도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M과 ICY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간증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다가갈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각자가 딱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마음들을 준비해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선교대원들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하셨다는 간증으로 넘치는 1일 선교였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다음 1일선교를 기다리고 있고, 이후 7월에 Neah Bay, Washington으로 가는 선교를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관계 사진 8면>

| 글, 사진: 이성우 전도사 |

■ 어버이주일

공경과 감사를 담아 'Happy Mother's Day!'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어버이주일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르신들을 위해 장수사진도 찍어드리고 있다. <사진: 양영, 최호기 기자>

5월 첫째 주일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ICY 학생들과 코람데오 청년들은 하루 전부터 만든 빨간 카네이션 코사지를 예배드리러 오시는 어머님 아버지들 가슴에 일일이 달아드리며 감사와 사랑을 함께 전해드렸다.

올해는 특별히 각 채플 사진국에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장수사진을 일일이 찍어드렸는데, 밸리채플의 김다슬 집사와 MP채플의 최호기 집사가 촬영을 담당했다.

밸리채플의 한 권사님께서서는 평소 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섬세히 보살펴 주셔서 큰 감사와 감동을 받으셨다며 수고하신 사진국 팀원들께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 봉투를 드렸는데, 극구 사양하며 교회에 헌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숙한 사진국 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한의 감사와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다.

| 임용자 기자 |



■ 주안에라이프 불학기 종강

"방학이 너무 길어요"

날짜, 12주의 주안에라이프가 불학기를 종강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며 행복했는지 12주간의 너무 빨리 가버렸다는 아쉬움으로 마지막날에 뽀글을 가졌다.

18 과목의 수업을 담당해주신 20여분의 강사님들, 또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신 주안에 대장금 팀원들, 종횡무진 달리고 뛰며 전체를 보살펴 주신 이미란 전도사님, 김경배 국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3개월간의 방학을 끝내고 11기 주안에 라이프가 8월 마지막 주에 개강하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신다는 어르신들께서는 석달에 방학이 너무 길다며 항의 아닌 항의를 하시며 섭섭해 하셨다.

약 1시간 반에 걸쳐 어르신들의 재롱 잔치를 보며 얼마나 웃고 행복해 하시는지 '주안에 교회가 최고야' 를 외치는 어머님 아버지들을 바라보며 지난 12주간의 수고가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옴을 느끼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 임용자 기자 |



■ 교우동정

‘축하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삶에 가득히’



곽재은, 김혜민 성도(MP) MP 채플 5목장 곽재은, 김혜민 성도의 쌍둥이 딸 하늘나라가 지난 5월 16일 백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울리 외할아버지인 김경일 장로님과 외할머니 김옥희 권사님의 정성스런 돌보심 속에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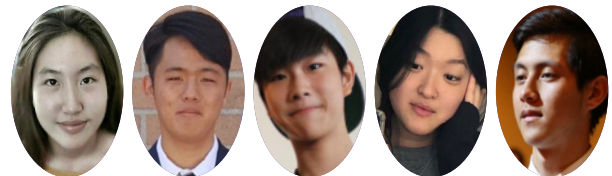
고기호, 고은경 집사(백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6목장의 고기호 집사님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일주일간 다녀오셨다. 부모님과과의 복된시간을 허락하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 다시 부모님과 여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졸업했어요" 더 넓은 세상으로

그 작고 어린던 아이들이 킨더에 들어갔던 때가 언젠가 같은데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이제 성인으로 사회에 문을 두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요~

졸업자 명단: Heidi Vaughn, Joshua Kim, Alex Kim, Jason Oh, Katie Park(MP채플)/ Kaylee Kim, Caleb Yun, Chris Lee, Jalen Pontillano, Andrew Cho, Joshua Kim, Matthew Ko, William Osorio, John Kim, Shane Kim(백리채플)



■ 드림교구/ 섬김과 기도로 모본을



백리채플 드림교구 목원들은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 많은 경험을 쌓으신 장로님 10분과 집사님 1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로하시지만 모든 면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서 목자로서 늘 도전을 받습니다.

몇가지를 의논하는 가운데 우리의 위치에서 어떻게하면 교회와 가정을 잘 섬기며 모본이 될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목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모임을 참석하여 말씀을 열심히 나누며 회개도 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자연히 목장모임 출석률도 좋고 새로 등록하는 식구도 늘고 있습니다. 목장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풍성해지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 정도영 장로 |



노후준비세미나 지난 5월 9일 주일예배 후 백리와 MP채플에서는 노후준비 세미나를 가졌다. 강사로는 함 알렉스 집사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으며 현재 집사님께서서는 알리안츠 보험 투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세미나 내용으로는 미국의 투자 방식과 종류, 시기 등에 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젊었을 때부터 알뜰히 준비하여 아름답고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기를 부탁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하셨다. | 임용자 기자 |

■ 주간예만남(밸리)



“주간예 행복한 만남” 22명의 새가족들 기쁨 충전

5월 30일 목요일 저녁, 밸리채플에서 소중하고 감사한 주간예만남이 있었다.

22명의 주간예 새식구들을 맞이하는 새가족들에서는 아침부터 준비로 분주하였다. 아름다운 꽃과 야채 꽃으로 장식한 테이블 세팅과 센터피스는 섬기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아름답고 정갈하였다.

디너 코스로는 양송이 수프를 시작으로 갈

릭디너를, 샐러드, 새우 튀김, 비프 스테이크 폴코스와 과일, 수정과 등 맛있는 후식으로 디너가 제공되었다.

최혁 담임목사께서 주간예교회가 개척하는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과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 6년간에 교회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주셨다.

또 교회비전 및 목회철학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새가족들이 공감하고 각자 주간예교회의 가족이 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믿음의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는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임용자 기자 |



이은성 집사



강대니 집사



정성훈/김지희 성도



엄스캣/이카이 성도



홍순자 권사/홍성희 집사



이태호/김유지 성도



조근희 권사



이지연 집사



임흥식 집사



로라/탐 박 집사



박용진/강연남 집사



이현영/조성원 집사



이여숙 집사



장영주 집사



오창원 집사

■ 새가족 소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희 부부는 올해 1월에 한국에서 결혼해 3월 14일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없었던 터라,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웠지만 우리가 계획할 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보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하며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준비



정성훈, 김지희 성도(벨리)

되지 않은 상태로 오는터라 불안한 마음들이 엄습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주시겠지' 하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도하며 미국으로 오게되었습니다.

그 기도 안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선명하고 바른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이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함을 받아야했던 것이 교회선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안에교회로 분명하게 인도해주시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은 주일예배가 아닌 금요일예배였습니다. 지금 시부모님댁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 제일 가깝기도 하였고, 무작정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금요일 저녁에 주안에교회를 오게되었습니다.

그날은 최혁목사님께서 교회론을 너무나도 쉽고, 선명하고, 재미있으면서 깊이있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마지막 짧은 기도시간에 저는 하나님께 남편이 주일날 이 교회에서 예배드려볼까? 하는 말이 나오면 이 교회로 인도해주시는것이라고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나오는 길에 남편 입술에서 동일한 말이 나왔고 우리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안에교회로 인도해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때마다 '말씀 듣고 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목장모임이나 목장식구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보여주신 비전’

‘만남’은 언제나 설레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만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인생의 여정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주 안에서 만남’은 언제나 저에게 성장과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놓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은 오늘도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를 다함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은 오늘도 저를 삶에 예배자로 서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만남은 온전하지 못한 저를 주님의 동역자로 자라가도록 지속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준 교회 지체들과의 ‘만남’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의 만남은 마치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발효 시간’이 필요하듯 그리스도의 성품을 닦아가기 위해 서로를 인내하며 사랑으로 세워주는 조력자와의 만남은 부르심의 꽃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올해 안식년의 길목에서 만난 주안에교회와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새신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주안에만남’은 저와 저희 가정에 주신 비전을 새롭게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시간 반 거리를 운전하고 오고가야 하는 힘들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사모함을 주시며 이끄신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번 ‘주안에만남’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안에만남’을 위해 수고해주신 사역자님들의 따스한 섬김은 낯설고 수줍음으로 가득 찬 새신자들에게 교회 지체로 한 걸음 다가서도록 손잡아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정성껏 준비해주신 저녁 만찬과 직접 새 가족들에게 일일이 서빙해 주시는 목사님과 새가족 사역자님들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섬김은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그동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회복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부르신 주안에교회가 그 가치를 알고 주님만 목적되기를 바라는 목회철학을 나누시는 목사님의 표정 속에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박용진, 강연남 집사(벨리)

■ 주안에만남, 소감 한마디

강대니 집사 아내가 지난 8월부터 주안에교회를 혼자 다니면서 한 번만 와보라는 권유에 딱 한 번을 방문하려고 하였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그 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혼자서 5년간이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교회 등록을 함으로 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창원 집사 저는 전세계를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졌고, 현재 저희 집은 호주이며 아내와 가족들은 전부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주안

에 교회가 너무 좋아 이 교회가 나의 두번째 거주지이며, 집입니다.

엄스캣, 이가이 성도 말씀이 갈급하여 혼자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지인들께서 주안에 교회를 가라고 권유하여 오고 보니 정말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여숙 집사 교회 근처에 살고 있어서 지나다니며 교회를 보게 되었고 언젠가는 이 교회

를 참석해 보아야지 했는데, 지난해 8월부터 내 발걸음은 자주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나면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말씀이 빙빙 돌며 잊어버리지 않았고 특히 교인들의 따뜻함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식 집사 미국 온지 45년동안 온갖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지난 10년간 신앙의 방황을 하다가 주안에교회에 오게되었습니다. 주안에 라이프에서처럼 즐겁고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어린이주일

주안에교회 다음세대... 밝고 씩씩하게 자라라

5월 5일 어린이주일, 1부 예배를 드리자마자, ICY&IC KIDS 교육부 선생님들과 양채플 PSG회장님들, 어머니들이 모여 '어린이주일' 행사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무척이나 활기차게 보였다.

알록달록한 풍선이 교육부 앞마당의 초록색 잔디와 더불어 컬러풀하면서도 아기자기 하다. 오후 1시가 되자 ICY&IC KIDS&JOY가 연합으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점심식사 후 있을 미니운동회를 위해 노랑, 초록, 파랑,빨강, 색상별로 조를 나눈 뒤, 조별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마치 피크닉 나온 가족같다.

이날 점심은 부모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들로 풍성했다. 스템무스비, 미니콘덕, 치킨돈까스, 떡볶이, 샌드위치, 차우멘, 스낵, Fruit Mix, 음료수와 물 등 아이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준비해 주신 손길이 참 감사하다.

지고 이기고를 떠나, 작은 아이들을 배려하고, 케어 하며 미니운동회를 이끌어가는 중, 고등부 아이들도, 파란 잔디 속에서 밝은 웃음으로 뛰어 다니는 아이들도 너무 평화롭고, 예쁘다. 미니운동회가 끝나갈 무렵, 두분 권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풍선아트'를 해주셨다. 힘드실텐데도 시종일관 미소 지으시며 '왕관' '풍선검' '꽃팔찌' '풍선동



물' 등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실 때마다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막10: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

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이 아이들이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잘~ 성장해 가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 이성은 기자 |

'선생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교육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주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 까지 아무 보상도 없이 봉사하고 계시죠. 학교에서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지만, 이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지요.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시며, 행여나 상처될까, 실족될까, 온마음을 다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상이 적지만, 주님께서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선생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 이성은 기자 |



하나님의 집, 반짝반짝 윤기나게...

"장로님은 때를 벗겨주세요. 저희는 물을 빨아 드릴게요. 집사님은 물걸레로 바닥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MP채플 환경미화국 주관으로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모여서 한참 땀방울을 흘린 보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바닥은 잠시 후 두 번의 왁스칠로 인하여 처음 입당했을 때 보다 더 반짝반짝 윤기나는 바닥으로 변했습니다. 웃음과 은혜의 나눔, 부역과 브니엘에서 풍겨오던 사랑의 향기를 다시금 누릴 날을 기대하며 기쁘게 헌신한 시간이었습니다.

| 오승현 전도사 |





■ 한국 브릿지캠프

1박2일 짧은 만남, 평생 못잊을 말씀의 은혜

부모님과 어린이, 선생님과 제자, 가족과 가족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5월, 주안예교회는 브릿지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성경과 세상을 이어주는 또 다른 다리 하나를 세우기 시작했다.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동안 경기도 장삼리 수양관에서 진행된 브릿지 캠프는 약 90여명의 신청자들이 참여했으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말씀과 짜임새있는 구성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을 경험했다.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부터 80을 목전에 두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와, 부모님을 따라와서 긴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찬양과 기도에도 스스로 동참했던 5살, 7살의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동일했다.

아예 기독교를 알지 못했던 어떤 분은 최혁 목사님의 체계적인 말씀을 들어가면서 대상을 모른채 막연하게 품었던 소망이 하나님이란걸 깨닫기도 했고, 방향을 상실한 채 기복주의에 빠져서 허덕이고있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회개와 다짐의 기도를

도해내는 분도 있었다.

마지막 말씀이 끝난 뒤에는 너무 짧았던 시간을 아쉬워하면서도 소수의 봉사자들을 도와서 정리정돈에 솔선수범하는 성숙함을 보이며 큰 감동을 선물 하기도 했다.

비록,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첫발을 내디딘 브릿지 캠프였지만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완성해 가실거라 믿으며 다리를 지탱하는 작은 돌맹이 역할이나마 사용되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본다.

| 오희경 기자 |



브릿지캠프에 참가한 한국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브릿지캠프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2. 받은 은혜와 마음의 변화는?

강병복(더사랑의교회)

1. 한국힐링캠프 1기에 참가한 지인의 소개로
2. 한국에서도 듣기 힘든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습니다.

성영선(명성교회)

1.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2. 제 신앙을 점검하고, 삶과 기도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오영지(여수성광교회)

1. 지인의 소개로
2. 화상처럼 성령의 불이... 이런 말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진숙(서울온누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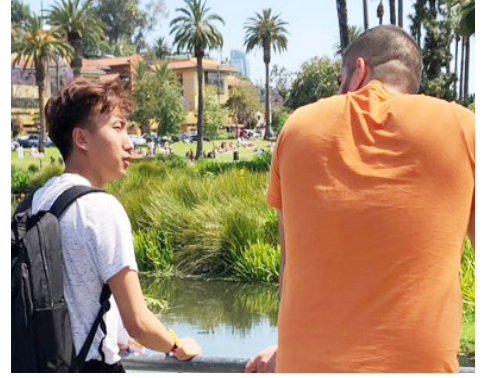
1. 시어머니의 권유로(참가하기까지 투덜투덜...)
2.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았습니다.

이경희(산돌교회)

1. 성령체험과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2.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하는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 EM · ICY City Outreach(일일선교)



EM과 ICY 학생들이 에코팍에 나온 주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 잊지 못할 주일학교 스승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나에게는 생각나는 분이 한분 계신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주일학교에서 나를 가르치셨던 '채연희 선생님' 이시다.

불교집안 이었지만 엄마는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교회에 나가라고 하셨고, 그때 교회에 처음 나가면서 주일학교에서 나를 맡으셨던 선생님,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나에게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과 함께 맞벌이로 바쁘셨던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셨다.

간혹 내가 교회에 빠지는 날은, 핸드폰도 없던 그 시절에 우리집 골목 앞에서 내가 나오기를 몇시간씩 기다리기도 하셨다. 그 당시 구하기도 어려웠던 미제 쿠키랑 초코렛을 선물로 받으시는 날에는 상자를 뜯지도 않으시고 가지고 오셔서 '뭘 고를 거냐' 고 나한테 제일 먼저 고를 기회를 주셨고, 난 보물상자를 본 것 같은 두근거림으로 한참 눈을 굴리다가 하나를 집어 들고는 한꺼번에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고, 찢끔찢끔 아껴 먹으며 행복해 했

던 기억이 바로 잊그제 일처럼 생생하다. 난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꼬마 초신자였지만, 아마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한 유년기를 보내며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몇년간 내가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게끔 지극 정성을 다하셨던 선생님은 내가 학년이 올라가고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 할때까지 늘 물심양면으로 힘이 되어 주셨고, 말씀 구절을 함께 읽을 때마다 '내가 커서 힘들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외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거야' 라고 늘 말씀하셨다.

그러던 선생님께서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같은 청년부에 계시던 남자분과 결혼을 하시고는 먼 곳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간혹 선생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혼을 하셨다.. 편찮으시다.. 라는 안좋은 소식만 들려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리고 선생님 이라면 그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내실거라고 믿고 싶다.

선생님~ 저에게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저희 가족 전도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에 잘 다니고 있어요. 기쁘시죠? 소식이라도 닿으면 꼭~한번 뵙고 싶네요~ 그 꼬맹이 성은이가 이제 중년을 훨씬 넘어서, 그때 저만한 딸도 있다고..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 붙잡고 살라고, 잘 가르쳐주신 덕분이라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몸소 보여주신 사랑, 헌신, 정성, 저도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꼭~선생님 같은 사람 되려고 노력했는데...힘들 더라고요.. 언젠가 뵈 수 있을지 확실치 않지만, 선생님이랑 저, 주 안에서 믿음 지키며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웃으며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이성은 기자(MP)

■ 학부모를 성교육 세미나

세상풍조에 물든 학교교육 기도로 자녀들을 지켜내자

5월 18일 2시가 좀 넘는 시각, MP채플 ICY룸에서 베델교회에서 교회학교 디렉터로 섬기고 계시는 이진아 전도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지금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성교육'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다.

3시간반 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강렬하면서도 충격적인 공립학교의 조기 성교육(킨더부터 시행)에 관한 위급한 상황들을 하나 하나 짚으시며, 설명하실 때마다 아~~ 하는 한숨소리로 가득찼고, 두 아이가 있는 나조차 숨이 헉헉 하고 막혔다.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믿음을 더욱 지키기 더욱 어렵다고 하시며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이 아이들을 위해 좀더 기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 부모들도 회개하여야 하며,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자책하는 마음에 가슴이 아팠다. 부모들이 이런 세미나를 통하여 먼저 알고 깨달아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교회와 연합하여 말씀하기와 기도로 아이들을 훈련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가정과 학



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된 우리가 이대로 방관만 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학교에서 아스피린 한 알을 주기는 어려워도 부모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사춘기에 성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상담을 통해 '성전환'을 부추기게 할 수도 있다. 사춘기 한때의 방황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를 돌이킬 수도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절망 속에 괴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끝으로 이진아 전도사님께서 부탁하신대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음세대 지키미'로 OPT-OUT NOTICE에 사인도 해서 보내고, SB673건에 반대하는 전화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ICY 김민재 전도사님과 교육부 국장님이신 조원 집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12:2)

| 이성은 기자 |

■ EM 주안예살 2권

'제자의 삶'을 배워요

EM 주안예살 1권의 같은 훈련생 10명이 5월에 2권으로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MP에서 5명(Eric Kwon, Hannah Chung, Yehju Park, Sam Bae, Isaac Han), 벨리에서 5명(Emily Nguyen, Shane Kim, Gloria Yi, Kevin Kang, Paul Yang)의 EM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두번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주안예살 Abundant life 1권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배웠다면, Abundant life 2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기도하는 법, 성경 읽는 법, 옛사람과 마귀를 대적하는 법, 복음을 전하는 법 등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다소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루지만, 기초는 날마다 다져야함을 마음에 새기며 성실하게 당근과 채찍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EM에서 구경꾼들이 아닌 액션을 취하는 제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성우 전도사 |

■ 알고 계시나요?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유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물고기(익투스) 표시이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차 룸미러에 십자가를 걸고, 자동차 뒷범퍼에는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를 붙인다. 익투스(ΙΧΘΥΣ)는 예수(Ιησους) 그리스도(Χριστος) 하나님의(θεος) 아들(υιο) 구세주(σωτηρ) 라는 말의 앞글자만 따온 것인데, 물고기라는 헬라어 단어와 일치한다.

익투스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십자가 만큼이나 고난과 박해의 역사를 이겨낸 신앙고백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초기 기독교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겪었다. 박해를 피해 카타콤 같은 지하 공동묘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기도 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땅에 물고기 모양을 그렸다. 그리고 상대방이 물고기 그림으로 화답할 때 비로소 믿음의 대화를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알리기 위한 암호와 표식으로 물고기 모형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익투스 또한 많은 기독교인에게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기독교의 표식과 상징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숨을 건 신앙고백이라는 것과 그것의 정확한 의미, 뜻을 알지 못하면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국민일보 발췌 |

■ 주안에 가정을 다녀와서

"나의 부족, 성령의 채우심"

주안에가정 기질세미나를 경험하고 많은 것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혈질이 많았던 사춘기를 지나 20대에는 담즙질 기질로 모험과 도전을 하면서 비즈니스도 해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면서 많이 소심해지고 나의 합리화를 위해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점액질 기질을 보면서 전 학습환경으로 인해 점액질이라는 옷을 입고 제가 하고 있는 역할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너무나 부족한 우울질 기질을 발견하고 채워나가고 싶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많이 부족하고 어떤 기질은 많이 채워져 있지만 앞으로는 성령의 학습으로 배운 기질의 옷을 입고 남은 저의 인생에서 저울질이 평행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운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수인 집사(MP)

"훈련과 순종으로 예수님 성품 닮기를"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타인들과 부딪치며 생활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도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선 굳이 강조 하지 않아도 공감 하리라 생각한다.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듯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 부부에게 주안에 가정 세미나는 막혀버린 혈관을 뚫어주는 혈관 스탠트시술과도 같은 존재였다.

첫날 첫 시간부터 시작된 최혁 목사님의 강의는 다음날 끝날 때까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부부에게 웃음, 탄식, 공감,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각각 우리에게 주신 서로 다른 네가지 기질이 그가 주신 선물인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서로가 이해하지 못했던 점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나 가장인 나의 생각과 행동이 더 옳다고 생각하며 식구들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었던 한마디인 "왜 저렇까?" 라는 의문이 "아~기질 때문이지!" 라고 하는 이해의 한마디로 바뀌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물론 시작이 되었을뿐 좀더 기도가 필요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말이다.

이번 주안에 가정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질이 훈련과 순종을 통해 변화되며 모든 기질의 장점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한다.



양승우 집사(벨리)

■ 텃마당 텃밭 관리

여름채소 더디게 자라고 열매가 잘 안맺힐 때는...

6월은 봄철에 심은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등 열매채소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심을 때의 크기와 별반 다르지 않게 크게 자랄 기미를 전혀 안보이는 것들이나 또는 보기 좋게 잘 자랐지만 열매가 잘 안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 보려합니다.



1. 모종이 잘 자라지 않고 잎이 연녹색 일 때: *Amend 나 Vegetable soil 과 같은 거름흙에 그냥 심은 경우에 잘 나타남- 거름흙과 보통 밭 흙을 반반씩 섞은 후 다시 심습니다. *흙이 딱딱하고 거름기 부족- 모종 주위를 호미 같은 것으로 매주고 유기농 비료(10-10-10 All purpose)를 준 다음 멀치를 덮어줍니다.

2.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안 열릴 때: *밭에 심었을 경우- 밭 부분에 있는 결가지들을 잘라 주고 유기농 비료 중 질소 인산 칼리의 성분이 0-10-10로 된 것을 줍니다. *화분에서 키울 때- 화분을 햇볕이

잘 비치는 곳으로 옮기고 0-10-10 성분의 유기농 비료를 주고 멀치를 덮어 줍니다. *허약하게 키만 크고 잎과 잎 사이가 넓은 경우- 햇볕이 가능한 한 많이 비치게 해주고 질소 성분이 너무 많은 경우 위와 같은 거름을 줍니다.

3. 꽃은 많이 피는데 열매가 달리기 전 꽃이 다 떨어지는 경우: *흙이 완전히 마르도록 물을 안 주었을 때나 기온이 80F

이상으로 높거나 65F 이하로 낮을 때 생기는 현상- 너서리나 흙디포에서 Blossom-set spray 약품을 구입하여 가볍게 뿌려 줍니다(\$ 5~10정도). *꽃가루받이를 도와줍니다. 토마토 오이 고추 가지의 나무지주를 툭툭 치거나 손으로 쓸어주어 수꽃의 꽃가루가 암꽃 머리에 떨어지게 해줍니다. 호박은 수꽃의 꽃대를 따서 암꽃 암술머리에 묻혀줍니다.

4. 고추 오이 가지 열매가 기형일 때: *잎이 부실하여 광합성 작용이 잘 안됨- 웃거름을 더 줍니다. *열매가 꼬부라지거나 곤봉처럼 뒷부분이 잘록, 반대로 앞부분이 잘록할 때- 거름이 부족함으로 웃거름 더 줍니다. *오이가 쓴 맛이 날 때- 물이 부족하므로 물을 충분히 줍니다.

토마토 오이 고추 가지 같은 열매채소는 첫 열매가 열린 후부터 매월 1회씩 열매채소에 주는 유기농 비료를 포기마다 1 테이블스푼씩 주면 오래 동안 많은 열매를 열게 됩니다. | 나형철 기자 |

■ 부모님을 생각하며

제가 지금까지 봐온 저희 부모님은, 인격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배울 부분이 아주 많은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누가 봐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항상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때 불편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초등학교때 중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 솔직히 저는 부모님을 미워하며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워만 할때에 두분은 항상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며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마저 뼈빠지게 바라본 사춘기 시절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하나님이 가라하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미국에 오셔서까지 한국 목회 대신에 중국 목회를 택하시며, 중국 교회 내에서 첫 외국인 목회자의 자리에서 많은 수모와 역경을 견뎌내신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십번, 수백번이셨을테고, 몰래 눈물을 흘치시며 견디셨을 아버지. 되돌아 보

행복을 추구하는 평화주의자와 성공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 기독교 가문과 유교 종갓집 가문,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든 면에서 공통분모가 없었던 두 분이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여장부이셨던 저희 친할머니와 고모들은 모두 신앙이 있으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젊으셨을적 신앙이 없으셨고 그 당시 한국의 사회분위기에 자신의 기질까지 더해져 오직 세상의 성공만이 아버님 인생의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한 어머니와 친가 가족들의 기도 덕분에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단지 세상 성공만을 쫓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하늘 생명 책에 기록하시기 위해 낮추시고 또 낮추시어 중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성장기에 신앙이 없으셨기에 말씀을 통해 성경을 알려주시는 가르침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젊으셨을 적 집사의 직분을 세운 교회에 대해 '나같이

섬김의 본, 소중한 나의 삶의 교훈



양하민 성도(MP)

면, 저희 아버지가 선택하신 그 길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것까지 내어주며 도와주시는 부모님은, 제가 4살때부터 한국에서 공동체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의탁 노인분들을 위한 '사랑의 집', 고아들을 위한 '새 생명 마을',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기쁨 홈스쿨.' 어렸을 때부터 한 집에서 2-30명의 식구들과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하며 섬김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하루에 2-30인분 음식과 간식을 만드시며 나눠줄수 있음에 기뻐하시던 어머니를 보며 나눌수 있음에 행복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도 같이 장애인들을 씻겨주고 밥을 먹여주는 일이 참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모님의 선택에 의한 환경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었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속에서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소한 일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고 헛된게 아님을 또 깨닫습니다.

매일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던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눔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꿈이라고 하신 부모님,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계신 부모님을 보며 믿음 생활은 저희 부모님처럼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려움 속에도 불굴의 믿음



한천희 성도(MP)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긴 교회에는 갈 수 없다' (그 교회는 책임을 쥐서 신앙을 도우려는 것이었겠지만)며 거부하신 것이나 항공사 근무 당시 부정부패에 가담하지 않아서 결국 그만두게 되신 것 등 삶을 통해 제게 보여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4대째 기독교집안에서 태어나 사회사업을 하셨던 장로님의 맏딸로 자라셨고 평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타 치는 법을 독학하고 결혼 전 북한산 압맥등반을 하시는 등 활동적이며 평화주의자 성격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교적,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에 더해 스스로 강한 기질과 성격을 갖고 계셨던 아버님은 저희 형제와 어머니의 교회 출석을 강력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갈등상황을 힘들어하는 기질을 갖고 계셨지만 신앙 문제에서만은 그 어떤 타협이나 물러섬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주일성수를 비롯해 저와 동생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머릿속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신앙을 삶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얼마전 주일 말씀 믿음 시리즈의 '믿음은 자리이다' 에서 가장 첫번째로 생각났던 것은 어머니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는 신앙인이라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셨고 제가 늘 고백하듯 그 덕분에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이 많았던 부모님이시고 그 안에서 갈등도 있었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저는 두 분 덕분에 사람이 서로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임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모습과 또한 삶으로 보여주신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궁금증 물어보세요(11)

1974년부터 가주에서 적용되던 Calfresh (과거 Food Stamps) 혜택 규칙이 6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에 바뀐 규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달에는 새로 적용되는 Calfresh 혜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4년부터 가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중 SSI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Calfresh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다. 이는 가주에서 받는 SSI 혜택에는 이미 식품구입을 위한 보조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6월 1일을 시작으로 SSI을 받는 분들도 Calfresh 신청을 받을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SSI를 받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추가혜택으로서 이를 받는다는 것이 내가 지금 받는 SSI 혜택금액이 줄어 들거나 혹은 다른 어떤 혜택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보너스(?) 혜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서류접수가 진행되었으며 모든 혜택은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셨으면 혜택은 신청한 날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을 서둘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각 거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DPSS 기관(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로 가시어서 신청하시거나 웹사이트 Dpsslacounty.gov 혹은 전화로도 한국어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에 본인의 신상정보만 정확히 기입하면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신청하

SSI 수혜자와 Calfresh

<6월 1일부터 동시 혜택 가능>

노재덕 집사
(SSA 근무)



실 경우 본인의 ID나 Social security 번호 혹은 미국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alfresh 혜택의 최고 액수는 1인 매달 \$198 부부일 경우 \$360 이나 이는 최고 혜택 금액으로써 SSI를 받는 분들은 이를 수입으로 간주되어 혜택액수를 계산하기에 위 액수를 다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다음 몇가지 사항들은 Calfresh혜택 액수를 계산하는 조건들로 쓰여집니다.

1) Rent: 내가 얼마의 rent 를 지불하고 있는가는 Calfresh 혜택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SSI 액수가 있기에 사실과 맞지 않는 rent 를 지불하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과금(utility expenses): 내가 rent 비용 이외에 공과금을 따로 낸다면 이 또한 혜택 액수 계산에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얼마를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공과금을 낸다는 증명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3) 처방약 및 의료 비용: 만약 내가 나의 돈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약을 구입하던지 혹은 의료 비용이 지출된다면 이 또한 더 많은 Calfresh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Calfresh는 현금 혜택이 아니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승인이 되면 신용카드같은 크기의 카드가 발행되며 매달 같은 날에 승인된 혜택 액수가 카드를 통해 지불되어지고 이의 사용을 위해서는 일반 식품점이나 Costco등에서 음식을 구입하시고 지불하실때 이 카드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단지 유의하실 것은 물건의 구입은 이미 조리되어 있지 않는 식품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주중
예배

수요예배/ 저녁 7:45 MP채플
금요일예배/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10:0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후 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임시예배처소 MP Chapel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안에” 2019년 7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철, 니형철, 박경숙,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터, 임용자, 임종구,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2019년부터는 주안에신문이 매달 초에 미리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